2017년도 표어 『지경을 넓히는 교회』 (대상 4:10)	NEW **순복음Life** 제18호	발행일 : 2017. 10. 8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이달의 간증>

-이성재 청년-

저는 우리 당진순복음교회에서 청년회 서기와 다니엘 유초등부 서기를 맡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주님의 일들을 받은 달란트대로 충성되게 감당해 나아가고 싶은 21살 이성재입니다. 예전부터 꼭 한번은 간증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매월 발행되는 라이프지 덕분에 간증을 하게 되네요. 처음에는 어떤 간증을 해야 되나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어떤 간증을 해야 성도님들께 은혜가 될까? 이런 간증을 과연 해도 될려나? 2주일의 고민 끝에 가장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 경험을 간증으로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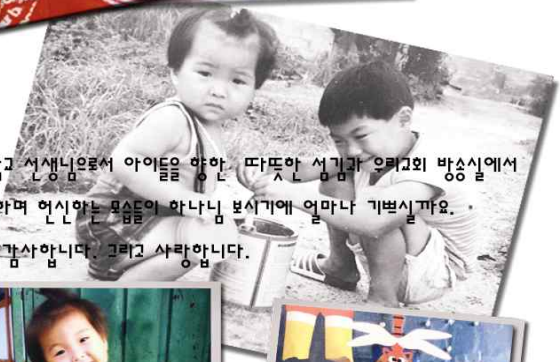
저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윤희자 전도사님과 이병철 장로님의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벌써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지난 초, 중, 고 12년 동안 공부했던거 보다 더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산업기사라는 자격증 때문인데 이 자격증은 많은 공부를 필요로 하고 취득하려면 거의 1년의 시간을 공부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을 꼭 얻어야 하기에 3개월 동안 저녁 11시까지 8시간 동안 도서관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였고 집에 돌아가기 전 교회에 들려 항상 감사기도와 소원기도를 했고..... 피곤한 몸은 기도가 끝나서야 귀가하여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공부와 교회일은 병행할 수 없으니 평일에만 공부에 집중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부 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1년에 걸쳐 해야 할 공부인데 3개월로 단축하기로 결심하고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한 저로서는 몹시 부담스러웠고 또 엄청난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자격증을 꼭 취득하게 해주실 거라 믿고 필기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오니 조금의 허탈감도 있긴 하였지만 홀가분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붙게 해 주실거야.” 라는 말만 되새겼습니다.
한달 후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 큰 기대는 큰 실망으로 올 수도 있기에 최대한 기대 없는 마음으로 합격자 명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성재라고 명단에 검색했더니 동명이인 2명이 나왔습니다. 둘 다 점수가 80점대였고 이걸 보면서도 저는 “내가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수험번호를 확인하고 나서야 저라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1년을 공부해야 취득 할 수 있는 자격증 시험인데 저는 3개월 밖에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걸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달 후 이제 실기 시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노력과 기도의 힘으로 합격률 9.9%안에 들어가게 되어 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편입을 포함한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더 많은 기적을 제게 보여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들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글을 보시는 많은 성도님들께도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번에 치룬 산업기사 시험을 통해 해답을 알아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천재는 1%의 두뇌와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봅니다. “천재는 겨자씨만한 1%의 작은 믿음의 기도와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항상 노력과 기도를 동반하는 생활을 이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불가능한 일도 해결 해 주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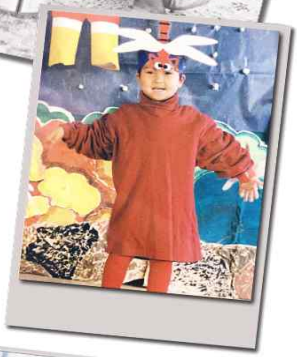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찌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15절)

가장 좋아하는 성경인물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 연단 받고 40년의 광야생활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모세의 이런 인내심과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인물로 쓰게 되었습니다.

성도알아가기...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섬김과 우리교회 방송실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실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성도 알아가기 -정소진 청년-

1. 자기소개 부탁해요.
- 저는 우리 당진순복음교회를 어릴 때부터 섬겨왔던 청년 정소진입니다.

2. 우리교회에는 언제 어떻게 오셨나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교회에 대한 첫인상이 궁금해요.
- 초등학교 3학년 때 한예지 권찰님 전도로 처음 교회에 나오기 시작 했습니다. 서로 친밀함이 느껴져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가족이었습니다. 끈끈한 가족애가 느껴져서 제가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교회입니다.

3. 결혼에 대한 자매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지금보다 더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는 일꾼의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4. '나의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를 50자 내외로 적어 주세요.
- 첫번째로 신앙생활을 우리교회에서 같이 할 수 있고 특히 축구를 좋아하여 축구부를 후원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물론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성품과 인성이 바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 자매님은 늘 한결같은 성품과 기질을 지니셨어요. 유전인가요? 노력인가요? 그리고 자신의 성품에 대해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엄마의 유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맡겨진 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려고 하는 성격입니다.
제 기준 안에서 그것을 못 했을 때 제 스스로 자책도 하고 후회를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물론 힘들고 귀찮고 게으름이 찾아 올 땐 나름대로 제 안에서 무수히 많이 싸우고 있어요.
한결같은 성품은 좋은 것 같아요. 유종의 미란 말도 있잖아요. 비록 과정은 힘들지만 한 가지 일을 끝냈을 때의 성취감이 있거든요.

6. 교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요, 자매님께 교사란 무엇인가요?
- 교사로서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건가 싶기도 합니다만, 어릴적 제게 사랑을 보여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사랑을 지금의 우리 아이들에게 줄려고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하고 있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선생님과 함께 하는 모든 시간이 기쁨이 되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7. 가족이 궁금해요. 형제지간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가정에서 자매님은 어떤 가족, 어떤 딸인가요?

- 오빠가 한명 있습니다. 오빠랑은 그다지 친하지 않아요. 학교 다니던 어릴 시절에 애교 있고 살가운 딸이 아니었기에 성인이 된 지금은 애교도 부리고 살갑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마랑은 친구 같은 딸로 살고 싶고요. 또 엄마의 삶을 어느 정도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전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아빠랑 통화하면 주의 친구들이 남자친구인 줄 압니다. 애교가 저도 모르게 나오나 봅니다. 유독 아빠한텐 애교가 많은 딸입니다.

8. 어릴 적에는 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지요. 그때 꿈은 무엇이였으며, 다 성장한 지금의 꿈은 무엇인가요?

- 전 정말 꿈이 없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때 진로를 고민하다 운동하는 오빠의 영향을 받아 물리치료사라는 꿈을 꾸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9. 9월의 실천표어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입니다. 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 잘 실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어요. 지금 걱정하고 염려해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심하고 염려 할 그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하더라고요. 섭리 신앙의 삶을 주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10. 바야흐로 독서의 계절 가을이 도래했어요.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성경책은 얼마나 읽는지도 궁금해요.

- 음.....제가 책이랑 친하지 않아서 세계명작 101스토리를 아직도 읽고 있어요. 성경은 하루에 1장씩은 꼭 읽고 있습니다.

11.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주신 선물을 무엇인가요?

- 우리 교회요~~ 훌륭하신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성도님들을 만나 서로 같이 신앙생활하며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선물입니다. 우리교회 아니었으면 전 벌써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2. 우리교회에는 많은 권찰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평소에 그 분들의 모습을 보며 직분자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신적 있으신지요? 자매님이 되고 싶은 직분자는 어떤 모습인가요? 롤 모델을 하고 싶은 분이 있으신지요?

- 직분자들의 교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정생활과 아이들 키우기, 교회의 일들까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저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직분자의 모습이 되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며 교회 위아래로 섬기는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신앙생활 잘 하는 가족이요 부모 자녀가 한뜻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성장 해 나가는 가족을 보면 저도 그런 가정의 모습을 소망하며 스케치 해 봅니다.

13. 인생 30년 중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으며 그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 작년 겨울에 금전적인 손해를 봤습니다. 그때 나는 왜 그럴까 자책하며 정말 제 자신한테 실망을 많이 해서 내가 살아서 뭐하나 싶은 해선 안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 밤을 꼬박 새고 새벽예배를 드리는데 그 날 말씀이 제 안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라는 말씀이었고 다음날 말씀은 옥토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난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질 못 했구나~ 그 뒤로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하며 점차 많이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백퍼센트 마음의 회복이 다 된 건 아니지만 그때보단 많이 좋아졌습니다.

14.정소진으로 삼행시 지어주세요.

- **정**성스럽고
  소중히
  진실되게 살아가자
  어렵네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겠어요.

15. 30년의 생을 살아 오셨는데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을 정의 해 주세요.

- 인생은 내가 하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
입니다.

16. 30년을 살아보니 지나온 시간들이 참 쏜살같이도 지나갔지요? 청년부의 큰언니 큰누나로서 황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을,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며 지내고 있을 우리교회 후배 학생, 청년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

- 황금같은 주말에 친구들은 놀러 다니고 세상의 문화를 즐기지만 우린 그보다 더 좋은 신앙생활의 거름이 될 청년의 때를 하나님 안에서 지내다 보면 20대 후반의 삶의 모습은 세상의 친구들의 모습과는 다르다는걸 깨닫는 날이 올 거야~ 비록 지금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겠지만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길 기도하며 응원할게. 모든 것은 겪어봐야 하더라고~~ 나도 그랬거든. 아무튼 모든 학생 청년들아..
영 분별을 잘 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자꾸나!!

17. 자매님의 기준에서 우리교회 제일의 요리사, 제일의 가수, 최고의 미남, 최고의 미녀, 마지막으로 최고의 일꾼을 선정해주세요.

- 주일 중식이 너무 맛있어요. 요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요리사 이십니다. 제가 요리를 못하거든요.

찬양대 성가대 모두가 가수이십니다. 이거 또한 제가 노래를 정말 못하거든요. 청년회에서도 찬양에 관련된 것은 제가 안하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쁘시고 잘 생겼습니다. 특히 주일학교 학생 청년들을 보면 교회 아이들이 예뻐요. 팔이 안으로 굽나봐요~

18. 청년시절은 특히 서른이란 나이의 청년시절이란 어른과 어른 아닌 사람을 구분 짓기에 매우 애매한 때 인 듯합니다. 어른 아닌 입장에서 이건 아니다 싶은 교회분들의 모습을 지적해 주세요. 귀담아 듣고 어른으로서 자숙하며 바르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어린아이 같은 투정과 불만이 아닌 묵묵히 행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저희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살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새가족 소개>

-김성대 성도님-

오랜만이지요? 새 가족 소개가요~
매주 매주 새로운 성도를 소개하고 싶네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김정화 집사님의 남편이지요? 김성대 성도님이십니다.
올해 47세이신 성도님은 경기 안성이 고향이시고 안성에서 유년시절과 학창시절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직업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이십니다. 필자가 아이를 낳아 기를 때 잠 안자고 보채면 늘 경찰이 잡아간다고 겁을 주곤 했었는데~~ 하나도 무섭지 않은 온유하신 경찰이십니다. 아이들이 겁먹지 않겠네요.^^ 우리 김정화 집사님과는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만나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사님의 눈매를 무섭게 보고 있거든요. 쌍꺼풀 수술 전에는 더 매서운 눈이었거든요?? 그런데 짝이 될려니 그랬나 봐요...
글쎄 첫인상이 너무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순해 보였대요.~~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들 하시나요? ㅋㅋㅋ
어떻게 결혼까지 결심하셨느냐고 여쭈어보니 첫 만남부터 끌리셨다니 두 분 천생연분입니다. 김성대 성도님에겐 19살과 이제 10살 되는 아들 둘이 있으시고 김정화 집사님에게는 21살에 아들 성 이가 있습니다. 이들이 큰 아픔을 겪고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스런 모습으로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행복하고 다복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힘써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두 분과 세 아들들...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귀한 축복의 가정으로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 엄마의 편지 -

이영주집사

사랑하는 아들.....
오늘따라 하늘이 어찌나 이쁘고 푸르른지~~
우리 승혁이를 보러 태백으로 향하는 엄마는 너무 설래고 두근거리는 마음이었단다.
태백에서 처음으로 보는 아들의 모습은 엄마를 웃음짓게 하였지. 왜냐구?
너의 모습에서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 보였기 때문이란다. 대표팀에 선발되어서 마음의 부담과 잘 해야겠다는 의욕이 앞서지는 않았을까! 아빠 엄마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에 힘들지는 않을까~ 했던 엄마의 염려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부끄럽기까지 했다. 아직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한다 해서 불안해하는 모습도 없었고 친구와 형들과 잘 지내고 있는 아들의 모습은 너무 자랑스럽더라.~ 이번 의 기회를 통하여 네가 한 발자국 더 성장하였으리라 엄마는 굳게 믿는다. 이제까지도 잘 따라 와 주었지만 앞으로도 우리 승혁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을 분별하며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버려야 할 것과 취하여야 할 것을 알고 행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아들이 되었으면 한다.
엄마가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지금의 신앙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행하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는 승혁이가 되길 바란다.
물론 지금도 아주 잘하고 있어서 항상 감사하지만 성장 없는 신앙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거든. 그러니 내년엔 더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나 세상 어느 곳에 서든지 인정받는 아들이 되길 기도하고 있지.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너도 잘 알기에 엄마에게 더 기도해 달라고 말할 때마다 엄마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웠었는지 아들은 알까??
너의 믿음의 요청은 엄마로 하여금 더욱 기도하게 했고 어찌보면 엄마의 신앙까지도 더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같아. 앞으로 취업도 잘 될거야... 걱정하지 말고 너도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잊지 말도록 해라. 우리 승혁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너의 순종의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 질수 있도록 말이야. 앞으로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살아가 주길 바라고 하나님께 자랑거리 승혁이~~ 아빠 엄마에게도 자랑거리 승혁이~~ 누나 동생에게도 자랑거리 승혁이가 되는 참 잘사는 승혁이가 되길 기도한다.
아들 정말 사랑해^^

칭찬합시다!

혹시 예배시간에 방송 시설이 없으면 어떨까요? 아마 넓은 성전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목소리도,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의 감동도 훨씬 덜하겠지요? 예배 시간 전 언제나 먼저 방송실에서 마이크 성능도 살피고 조명이나 대형 프로젝트 화면에 비칠 찬양 가사, 때론 많은 작업을 요구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의 요청들을 묵묵히 감당해 내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몇 년째 수고하고 계신 **인청자 집사님**과 **정소진 청년**입니다. 늘 웃는 얼굴로 모든 이들에게 편안함을 주시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릴 때 두 분의 성실함과 수고하심으로 성도들이 더욱 예배에 집중 할 수 있다는 것 아시지요? 두 분의 삶이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평안하고 삶이 풍성해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역 최고!!

-충성 구역-

충성!!
주님의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가리지 않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충성구역입니다.
우리 구역에는 새벽을 쉬지 않으시며 기도하시는 기도대장 **정정희 권사님**과 애교쟁이에다 요리까지 잘하셔서 우리 교회 쉐프로 통하는 **현덕규 권사님**, 그리고 찬양이면 찬양 율동이면 율동 모든 것에 달란트를 가지고 계시며 올해 11월 딸에 결혼 날짜를 잡고 계신 **송정숙 집사님**이 계십니다.
또 쌍둥이를 낳아 단번에 애국하신 윤현진 자매님이 계십니다.
2017년이 많이 저물어가는 이때 되돌아보니 부활절 율동대회 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흐뭇합니다. 구역식구들이 순종하며 열심히 연습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움직여주신 덕분에 그 많은 경쟁팀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3등을 차지했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며 모두가 행복했던 시간이었지요~ 특히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은 송집사님께서 완벽하게 잘 감당하셔서 우리 모두가 더불어 잘 할 수 있었답니다. 이제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되돌아보며 잘 했던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남은 시간 열심과 충성을 통하여 주님께 헌신함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는 팔 수 없습니다

매일 시장에 나와 양파를 파는 노인에게 중년 신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양파 한 망에 얼마입니까?"
"1달러입니다."
그리고 노인은 두 줄에는 2달러, 세 줄에는 3달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중년 신사는 어떻게 세 줄을 사도 깎아주지 않느냐며,
2달러 50센트에 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중년 신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양파를 모두 사면 얼마에 줄 수 있나요?"
그러자 노인은 그 중년 신사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전부 다는 팔 수 없습니다."
중년 신사는 의아해하며 노인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단지 양파만을 팔기 위해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나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시장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온종일 사람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 나는 온종일 양파를 팔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이 양파들을 몽땅 팔아치운다면
내 즐거운 하루도 끝나지 않겠습니까?"

감사릴레이

(김남현 집사)

제가 이번에 다리 수술을 했어요. 이전보다 좋은 병원으로 인도하시고 실력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해요. 거기다 병원비도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부족함 없었음에 감사드려요~ 아직 많이 불편한 다리지만 이것마저도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드려요.

~다음 릴레이 하실분:강연순 권사님

중직자 헌신예배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딤전3:1-13)

집사1회 헌신예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2:6-7)

성경숨은그림찾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
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창세기 21장 5-6절)
[숨은그림 : 부엌칼, 팽이, 입술, 사과, 삼각자]

* 반대로 생각해보기! - essay.334 -

***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반대로 생각해보기~!!^^*

<성경 인물 소개>

이삭

뜻 : 웃음

(1) 아브라함 100세에(B.C.1890) 사라의 몸에서 출생한 아들(창21:-3).

(2)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직하여서 농업에만 전심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야곱같이 다사한 생활을 하지 않고 평온 하였다.

(3) 부친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 놓고 잡아 제사하려고할 때 효심이 극진한 그는 조금도 원망이나 반항이 없었으나 이 광경은 흡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태도와 같은 모형이다(창20:1-5, 22:2-13).

(4) 40세에 외종형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여 60세에 쌍둥이를 낳으니 곧 에서와 야곱이다(창24:67, 25:20-26).

(5) 흉년을 피하여 그랄에 거하는 중 그 아내를 누이라 하였다가 탄로되고 농사로 거부가 되니 그곳 사람들이 시기하여 우물을 메우니 다른 곳에 옮겨 팠더니 또 메우고 이같이 4차나 따라 다니며 메웠다. 그 다음에 파매 메우지 않는 고로 그 우물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창26:1).

(6) 나이 많아서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것을 야곱이 알고 가장하여 들어가니 눈이 어두운 이삭은 속아서 축복하였고 에서가 축복을 빼앗기고 야곱을 죽이려 하니 야곱을 불러 다시 축복하고 이르기를 밧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에게 장가들라 하여 보냈다(창27:28:1-4).

(7) 180세에 헤브론에서 별세하니 막벨라굴에 장사하였다(창35:28-29).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열국의 어미 사라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출생한 아들이다. 이삭(Issak)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며 그의 출생지는 브엘세바이다. 왜 그의 이름을 [웃음]이라 불렀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의 출생목적과 생애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때 하나님께선 그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창 17:15-16).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백세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며 사라의 나이 구십세인데 어찌 생산이 가능하리오]하며 웃었다.

이 웃음은 하나님의 해학적 언약에 대한 반신반의의 웃음이며 그의 합리적 사고에서 발생된 불가능의 웃음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선 언약하신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안기심으로 그들의 해학적 웃음을 참된 기쁨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은혜를 히브리어로 [핸](친절)이라 하며, 헬라어로 [카리스](기쁨)라 한다. 이삭은 인간의 합리성과 자연질서를 초월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은혜의 동사격인 [웃음]이 그의 이름이 되었던 것이다.

이삭은 모리야산의 제사 경험을 통하여 다시한번 그의 이름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 자기의 생명 대신에 예비하신 한마리 양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게 된 생명, 그는 이러한 은혜의 체험으로 인하여 다시 한껏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은혜가 동기가 되어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상적 가정의 장막을 치며 자신 과 이웃의 번영을 위하여 우물을 파는 자가 되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 신자상을 찾아 볼 수 있다.

빅브라더 Big Brother

조지오웰의 소설(1984)에 등장하는 감시자를 부르는 용어로, 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 또는 사회체계를 말한다.

글로켈리제이션 Glocalization

세계화(globalization)와 현지화(localization)를 합친 단어로 세계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현지문화를 반영하는 경영전략이다.

린치핀 Linchpin

바퀴가 빠지지 않게 축에 꽂는 핀에서 유래.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외교적인 관계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며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핵심, 구심점이라는 의미이다.

인지부조화 Cognitive Dissonance

자신의 신념과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 느끼게 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실제 현상에 끼워 맞추려 하는 것이다. 아전인수, 자기합리화 라고도 한다.

가축통화 Key Currency

국제 금융거래, 결제의 기본이 되는 화폐다. 대표적으로 금(gold)과 미국 달러가 있으며 Basic Currency 라고도 한다.

마키아벨리즘 Machiavellism

국가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 어떤 방법도 허용된다는 국가지상주의적 사상이다. 이탈리아 학자 미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주장했다.

<이달에 issue>

아이들이 위험하다.

최근 뉴스에는 학교폭력 관련 기사들로 많은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학교가 생긴 후 한 번도 없던 적은 없었지만 요즘처럼 화두가 되기는 이례적인 일이다.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인천, 아산, 천안 등 많은 지역에서 경쟁하듯 학교폭력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를 보고 있노라면 아이들을 세상 속으로 내보내는 것이 많이 꺼려지는 것은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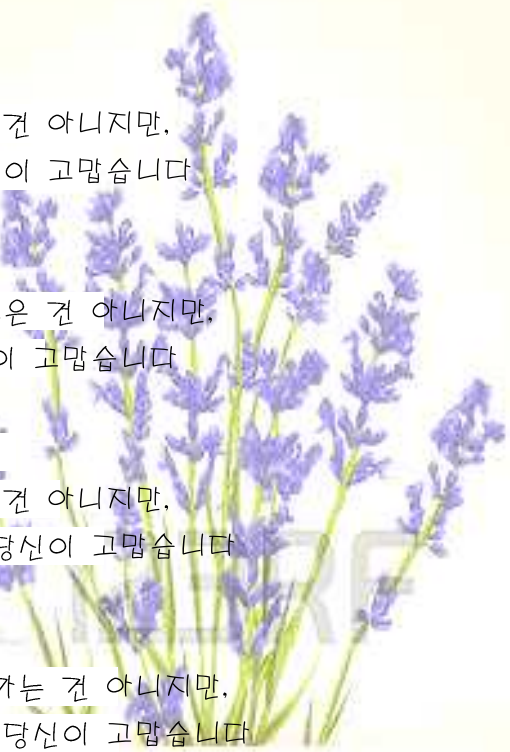
예전과 비교해서 보면 학교폭력의 강도는 조금 더 자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보인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 예전에는 일진들에 의해서 정해지면 그 친구를 괴롭히는 등의 양상을 보였다면 요즘의 학교폭력은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볼 수 있다.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의 배신감은 물론이고 괴롭힘까지 고스란히 혼자 견뎌 내야하는 아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내던지는 극단적인 상황도 만들어 낸다.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고민이 있을 때 들어줄 누군가가 있다면, 보듬어줄 누군가가 있다면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참으로 복되고 복된 아이들이다. 세상의 아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회도 얻었기에 복되다. 부모님이나 친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들도,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언제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 주시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니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한다.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지 않길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나라와 세계 가운데 꼭 필요한 일꾼들도 자라나길 또 기도한다.

예쁜 우리 말

1. 나들목 : 나가고 들고 하는 길목
2. 낟가리 : 낟알이 붙은 채로 있는 곡식을 많이 쌓은 큰 더미
3. 눈자라기 : 아직 곧추 앉지 못하는 어린아이
4. 노고지리 : 종달새를 이르는 말
5. 높새바람 : 북동풍
6. 눈엣가시 : 몹시 미워 눈에 거슬리는 사람
   특히 본처가 시앗(남편의 첩)을 이르는 말
7. 다락밭 : 비탈진 곳에 층이 지게 만든 밭
8. 다복다복 : 풀이나 나무 같은 것이
   여기 저기 한데 뭉쳐 다보록하게 있는 모양
9. 대견하다 : 흐뭇하도록 자랑스럽다
10. 도리깨 : 이삭을 두드려서 낟갱이를 떠는 데 쓰는 연장
11. 동티 : 흙 따위를 잘못 다루어
    지신의 노여움을 사서 재앙을 받는 일
12. 되작거리다 : 물건을 찾느라고 이리저리 들추어 뒤지다
13. 두레 : 농촌에서 농번기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 작업을 하기 위해 만든 조직
14. 들당같다 :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다
15. 다솜 : 애틋한 사랑
16. 되모시 : 이혼하고 다시 처녀 행세를 하는 여자를 이르는 말
17. 들머리 : 들어가는 첫머리
18. 떡이 : 다 떨어 싸게 파는 나머지 물건
19. 또아리 : 짐을 일 때 머리에 받치는 고리모양의 물건
20. 마당멱질 : 우둘투둘한 마당에 흙을 이겨 고르게 바르는 일

고맙습니다.



손잡아 준다고
넘어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손 내미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응원한다고
삶이 힘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힘내라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일으켜 준다고
상처가 아무는 건 아니지만,
흙 털어 주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목마르다고
당장 숨 넘어 가는 건 아니지만,
물병 챙겨주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혼자 간다고
다 길 잃는 건 아니지만,
기다려준 당신이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한다고
우울해지는 건 아니지만,
말 건네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 담아온 글 -

◉ 이달의 교회소식

1. 찬양예배 / 10월 1일
2. 가을대심방 / 10월 10일~11월 16일
3. 교회창립24주년감사예배 / 10월 15일 오전11시
   교회 만찬식 / 10월 15일 오후 5시
4. 권찰회 헌신예배 / 10월 22일
5. 가을단풍여행 / 10월 23일

◉ 공지사항

1. 10월 생활실천표어 : 너의 삶을 온전케 하라
2. 10월 신앙서적 : 하루 묵상

◉ 이달의 교우소식

1. 병원입원 / 이재욱권사 - 순천향병원
2. 새가족등록 / 김성대성도(김정화집사 남편)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권찰
송미숙 권찰
조은희 권찰

DJFGC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